

開放化時代와 濟州農業의 構造改善

夫 允 源*

目 次	
I. 머리말	IV. 濟州農業의 構造改善과 開發方向
II. 濟州農業 農村의 對内外 與件	V. 맺음말
III. 濟州農業과 農産物 輸入開放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80년대말 이후 農産物 輸入開放化 조치가 본격화되고, 北方政策에 따라 이웃 중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또한 UR협상으로 전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예견되는 상황속에서 農産物 시장개방화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田作중심의 과수, 채소, 시설원예 등을 재배하고 있어 輸入開放에 따라 바나나, 파인애플 재배농가는 이미 타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1960년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농업 생산 위주로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제주지역 농업과 농촌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與件變化에 對應하여 정부는 이미 農漁村 構造改善 對策을 집행중에 있으며 새문민정부는 「신정부」 5개년계획(시안)을 발표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추진 목표의 조기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1991. 12. 31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1차산업인 농업의 여건과 농업의 진흥을 명문화 입법하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제주지역 농업의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 農協中央會 濟州道支會 支會長

고려한 輸入開放에 대응하는 農業振興 計劃이 곧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

더구나 95년 이후에는 地方自治團體長 選舉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農業競爭力 確保를 위한 지역실정에 맞고 현실성 있는 農業振興 方案들이 제시되어 1차산업인 農業의 保護育成 發展에 지방정부 차원의 제반 자원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무튼 農産物 시장개방화는 많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이 틀림없으므로 여기서는 農産物 輸入開放과 관련하여 地域農業의 與件과 構造的 特性에 따른 濟州農業의 構造改善 方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濟州農業 農村의 對内外 與件

1. 제주도의 農業與件

제주도 농업은 지난 60년 초반까지만해도 田作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위주의 자급적 농업이 대부분이었으나 70년대들어 소득이 높은 감귤과 特用作物을 중심으로 하는 商業的 農業으로 轉換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적 조건이 주는 기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도만이 생산가능한 작목들을 생산하거나 시기를 조절하므로써 놀랄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91년 현재 國民總生産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인 반면 제주지역은 30%로 전국비율에 비해 무려 3.7배가 된다.

80년대 들어 감귤생산량이 급격한 증대에 따른 價格下落과 經營費 등 諸費用 上昇으로 감귤산업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채, 고구마 등 특용작물 재배면적은 값싼 外國産 農産物 수입 등으로 점차 감소하여 결국 存廢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특용작물을 대신하여 양배추, 당근, 파, 양파 등 채소류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급증하였으나 價格騰落이 심하여 이의 안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80년대 황금알을 낳는 농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작물생산은 외국농산물 수입급증으로 생산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廢業 또는 轉業으로 결국 뿌리채 뽑히게 되었다.

도내 작목별 재배면적의 變化推移를 보면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1>

지난 30년간 제주농업의 생산구조상의 특징을 보면 감귤 및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재배면적이 急減하고 있다. 특히 제주농업은 80년대 중반이후 農業總租收入의 50% 이상을 감귤에 의존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대되어 91년도에는 무려 67%에 달하게 되어 도내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柑橘産業 育成問題가 크게 대두되었다.

〈표 1〉 제주도내 작물재배면적 변동 추이

(단위 : ha)

구분 \ 년도별	'70	'80	'85	'90	'91
식량작물	58,303	39,143	29,191	28,772	23,855
특용작물	11,853	14,853	13,817	10,673	9,750
체 소	2,004	3,497	4,664	7,016	7,164
과 수	5,002	14,094	17,304	20,255	20,216
화 회	-	31	98	245	268

제주도 농업인구는 도내 총인구의 增加趨勢와는 달리 급속한 産業化 및 都市化 影響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91년 현재 도내 농업인구는 15만3천2백80명으로 지난 10년간 10만여명이 감소하였으며, 총인구의 29%(전국평균 1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 인구에서 5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30%로 지난 10년간 13%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은 農村勞賃上昇과 人力難을 加重시키고 있으며 後繼者 育成問題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표 2〉

〈표 2〉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인력 고령화 추이

구분 \ 년도별	'75	'80	'85	'91
전 체 인 구	411,732	462,755	488,576	521,801
농 가 인 구	254,839	243,260	185,339	153,280
구 성 비(%)	(62)	(53)	(38)	(29)
50세이상 인구	40,154	40,408	38,783	45,254
구 성 비(%)	(10)	(17)	(21)	(30)

※ 제주도 자료

그리고 제주도의 경지면적은 총 5만4천4백50ha로 이가운데 짧은 7백88ha로 1% 미만에 불과하며, 호당 경지면적은 1,3ha로 전국평균 1,2ha에 비하여 다소 큰편이다. 그러나 아직 經營規模의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가 여러 筆地로 분산되어 있는데다 골짜기 심하고 자갈이 많아 농업기계화 등 농지의 效率的 利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농업의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는 농산물 流通構造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농산물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항만시설 및 수송선박 부족, 항공수송의 곤란, 농산물 수출을 위한 對日 直航路 미비 등 농산물 유통을 위한 下部構造의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

농산물은 부패성과 변질성이 있어 新鮮度 維持가 어렵고 유통단계가 많아 유통비용이 많이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소비지 수요에 대응력(2~3일 所要)이 취약하다.

이와 함께 公營都賣市場, 法定도매시장 등이 미비하고 소매점이 영세성 등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상의 어려움이 많은데다 流通情報 획득 및 수요에 즉시 대응하는데 농민이 불리한 입장에 있어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농가소득 중 農外所得의 비율은 91년 현재 20%로 전국평균 46.3%와 비교해 볼때 매우 낮다. 특히 농가소득중 농외소득비율이 일본 86%, 대만 64%임을 감안할 때 제주도 농가의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표 3> 농가소득중 농외소득 비교표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외소득율
'91	전 국	13,105	7,035	6,070	46.3%
	제 주	13,591	10,873	2,718	20%
비	고	※ 외국의 농외소득 비율 일본 : ('90) : 96.2% (농기소 : 44,768천원) 대만 : ('89) : 64.2% (농기소 : 7,375천원)			

※ 제주도 자료

제주도는 地理的, 自然的 與件(교통, 관광지로서의 자연경관 보존, 환경오염억중 금지, 판매시장의 협소 등) 등으로 製造業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農外所得 增大方案 마련이 必須的이라고 할 수 있다.

2. 農業環境의 變化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輸出主導型 工業化 政策을 강력히 추진하여 由來없는 高度成長을 가져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먼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食品消費 形態가 高級化, 多樣化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곡류소비는 줄고 채소류, 축산물, 과일류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건강지향적 식품소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高調되고 있다. 또한 便宜食品 소비가 급증하여 가공식품 및 外食産業이 빠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들어 농업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國際化·開放化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農産物交易 자유화 추세에 따라 UR協商 妥結與否와 관계없이 국내농업의 단계적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민주화 및 지방화의 빠른 進展으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육성과 고도성장과정에서 상대적 落後를 면치 못했던 농어촌에 대한 지원요구가 거세어 지는 등 地域間, 産業間 均衡發展이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勞働人力 부족현상의 加速化로 遊休農地가 증가하고 多目的 생산체제에서 경쟁력있는 품목위의 경영개선과 多量爲主의 생산체제에서 品質爲主의 유통체제로의 전환 등 농업의 省力化와 상업적 영농체제로 진전되고 있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公害, 交通難 등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농어촌개념이 바뀌면서 농어촌 산지가 레저, 스포츠 및 定住生活空間으로 부각되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특히 주거환경, 교육, 의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요구가 더욱 거세어지는 등 6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농촌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Ⅲ. 濟州農業과 農産物 輸入開放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UR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國際收支를 이유로 더이상은 농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는 89. 10 GATT 국제수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의 수입자유화 留保品目에 대한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표 4>

〈표 4〉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현황

구 분	★ 대 상 품 목	'89 이전개방	'89~'91 개 방	'92~'94 개방(예시)				유보품목
				'92	'93	'94	계	
농축산물	1,166	736	156	23	23	23	69	205
수 산 물	282	266	9	-	1	-	1	6
임 산 물	342	128	92	20	20	21	61	61
계	1,790	1,130	257	44	44	44	131	272

더욱이 UR 협상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타결된다고 해도 그것은 쌀에 局限되며 나머지 품목의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귤을 중심으로한 제주도의 농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이 시작되기 전인 88년과 대부분의 국내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91년의 작목별 조수입 順位 변화를 비교해 보면 농산물 수입개방이 제주도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제주농업 작목별 조수입 변화

(단위 : %)

구분		순위									
		1	2	3	4	5	6	7	8	9	10
'83 (개발전)	작 목	감 귤	바나나	대 두	참 개	맥주맥	화 채	마 늘	고구마	감 자	파인애플
	조 수 입 구 성 비	50.7	8.9	4.5	4.4	3.9	2.9	2.8	2.8	2.1	1.5
'91 (개발후)	작 목	감 귤	감 자	화 채	맥주맥	마 늘	대 두	바나나	고구마	참 개	양 파
	조 수 입 구 성 비	67.0	4.4	3.2	2.9	2.9	2.1	1.9	1.6	1.5	1.4

88년도 제주도 農業租收入 총액 4천1백54억원중 감귤조수입이 2천1백6억원으로 50.7%를 차지, 가장 많고 바나나 9%, 대두 4.5%, 참깨 4.4%, 맥주맥 3.9%, 화채 2.9% 순이었으나 91년도에는 바나나, 대두, 참깨, 파인애플 등의 조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감귤, 감자, 화채, 맥주맥, 마늘 등의 조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도내농업의 作目轉換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田作중심의 제주농업이 직간접적으로 수입개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耕地의 遊休化 등으로 농업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濟州地域 經濟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IV. 濟州農業의 構造改善과 開發方向

1. 農業生産 構造改善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제주지역 농업여건이나 特性을 감안, 지역에 적합하고 競爭力이 있는(또는 집중지원시 경쟁이 가능한) 戰略作物을 발굴 보급하되 安全 高品質의 상품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농촌진흥원은 개방화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제주지역의 豫想전략 작목으로 <표 6, 7>에서와 같이 하우스감귤, 수출화훼, 端境期 신선채소, 아열대과수, 관광농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주요 작목별 경쟁력 품목

경쟁력	제 주	전 국
경쟁력 가능품목	감귤, 양다래, 신선채소, 화훼류, 버섯류, 약용작물, 양계, 양돈, 생식용포도, 유지,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류, 양채류, 양파, 감자(18)	사과, 배, 감귤, 감(단감), 양다래, 메실, 신선채소, 화훼류, 버섯류, 약용작물, 양계, 양돈, 양잠, 유자,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양채류, 산채류, 채소종자, 들깨, 생두(25)
경쟁력 취약품목	쌀, 보리, 콩, 팥, 녹두, 참깨, 땅콩, 고구마, 메밀, 멜론, 고추, 마늘, 옥우, 낙농, 양봉, 사슴, 산양, 사료작물, 조, 귀리, 유채, 바나나, 파인애플(23)	쌀, 보리, 콩, 팥, 녹두, 참깨, 땅콩, 고구마, 감자, 메밀, 멜론, 고추, 마늘, 양파, 차, 울무, 옥수수, 생강, 대추, 연뿌리, 옥우, 낙농, 양봉, 사슴, 산양, 사료작물, 강남콩, 완두콩, 조, 수수, 호밀, 귀리, 유채, 호프, 호도, 양앵두, 바나나, 파인애플, 양조용 포도, 가공용 복숭아(40)

※ 제주도 자료

〈표 7〉 지대별 개발 방향

地 帶 別	開 發 方 向
東 部 地 域 (舊左, 城山, 表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觀光地 中心 觀光農業 開發 — 조랑말, 토종닭, 꿩 等 ○ 柑橘 施設栽培 技術普及 — 金柑, 淸見 等 ○ 파인애플 優良品種 普及 및 品質向上 ○ 端境期 新鮮菜蔬 園地育成 — 당근, 대파, 만생양파, 감자 等 ○ 種子 種苗生産 — 花卉, 球根類, 菜蔬類 等
西 部 地 域 (翰林, 翰京, 大靜, 安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鮮菜蔬類 安定生産 技術普及 — 배추, 양배추, 마늘, 감자(가을, 겨울)의 端境期 出荷 ○ 果菜類 周年栽培 主産園地 育成 — 토마토, 오이, 抑制栽培 ○ 種子 種苗生産 — 薯類, 花卉 球根類, 菜蔬類 等
南 部 地 域 (西歸, 南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施設花卉 擴大 — 輸出作目的 品質向上과 競爭力 提高 ○ 施設 바나나 作目轉換 誘導 — 温州密柑, 生食用 高級葡萄, 花卉, 洋菜類 施設栽培 ○ 新作目 開發 入殖 — 비파, 無花果, 自生花卉
北 部 地 域 (濟州, 涯月, 朝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菜蔬 園地育成 — 겨울배추, 양배추, 早生양파, 호텔용 高級菜蔬 ○ 觀光農産物 生産園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박, 참외, 메론, 양다래 農産物 加工(果實, 山菜類)
中 山 間 (해발 200~ 6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藥用作物, 山菜類, 가을감자 主産園地 造成 ○ 自生資源 蒐集 商品化와 人工栽培法 開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山열매류 素材類 盆栽 等 ○ 畜産專業農 育成

※ 제주도 농진원 자료

따라서 이들 主産園地에 대한 지도,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 및 저온저장고 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輸出基盤도 다져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은 타지역과 비교할 때 특수한 지역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지역 경제에서 농업은 아직까지도 基幹産業이라는 사실이다. 농업진흥 그 자체가 제주지역 경제진흥에 매우 깊은 聯關性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을 代替할 산업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상 주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

91년 12월 31일 制定立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 법의 목적에 농업의 진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서도 농업진흥계획의 수립, 농산물의 需給安定,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의 내용을 明文化하고 있다. 또한 법 제28조 및 39조에서는 농업진흥에 特別會計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特別開發 優待事業에서 농업에 경제적 波及效果가 현저한 사업을 우대하도록 하는등 농업의 진흥은 제주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 수립중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이를 重點 반영하고 있다.

개방화시대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의 구조개선대책은 새政府의 新農政 추진을 위한 대책(시안)으로 이미 발표된 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와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이 「던켈」案대로 타결된다면 앞으로 일정유예기간이 지난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부 품목에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價格支持政策이나 생산비 보조정책과 같은 국내 農業保護政策을 실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업생산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생산기반 조성과 영농규모의 확대, 기계화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 후계인력의 육성 등을 優先投資對象事業으로 조정하여 농업생산의 구조개선에 力點을 두고 있다.

제주지역은 과수와 시설원예 및 채소재배 등 田作지역이므로 省力化를 위한 과수농업의 기계화 추진과 지역특성과 대상작목에 따른 시설현대화로 선진국형의 기술영농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急先務라 하겠다.

또한 최근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擡頭되고 있는데 專門營農人力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인력의 확보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감귤산업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밀식원 간벌과 함께 200高地 이상 지역에는 유자, 단감, 시설원예 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감귤생산면적을 2만ha 수준이하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감귤원내 농로 및 충분한 작업로의 개설, 다목적 스프링클러의 설치, 모노레일 시설 설치비 지원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방제기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감귤원의 토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토양개량제를 보조하여 감귤원의 토지개량사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귤생산능가도 고른 햇빛침투가 가능토록 간벌 등 기반조성에 자발적으로 參與하여 품질개량(糖度 12度 이상, 酸度 1.0度 미만)에 노력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內需價보다 다소 受取價가 低價일지라도 해외시장의 지속적 개척을 위하여 수출산업에 동참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감귤등에 있어서는 자기상표 개발로 품질 안전성에 대한 聲價를 획득토록 精選 선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2. 優秀農產物 生産과 輸出擴大

輸入開放化에 對應하여 高品質의 우수농산물 생산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농업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하며 현장중심의 産, 學, 官, 研 協同研究가 강화되어야 한다. 감귤 등 주산지 중심의 特化作目 시험장 설치 확대와 우량품종, 신품종 개발보급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농업기계, 시설기자재의 개발보급에 적극적인 정부투자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수농산물 生産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비비 등 有機農法에 의한 재배와 母樹園 설치 등 감귤 품종 갱신사업의 계속적 추진으로 우수품종을 재배토록 하고 주요 병충해의 생태조사와 자동방제기를 이용한 防除效果를 분석하여 새로운 병충해 방제기술이 개발 도입되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우리농산물 이용으로 食生活 改善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여야 한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는 가격경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품질면에서 優位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할 수 없다고 하는 농민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海外志向型 농업이 되어야 한다. 채소는 작은 것을 개발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배추·양배추 2kg 내외, 당근 15cm, 양파: 달콤한 맛)

1991년 제주농산물의 수출은 도전체 수출물량의 6%로 미미한 실적이지만 한국의 농산물 수출실적(국가 총수출액의 1%) 수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표 8>

<표 8> 제주도 년도별 수출실적

(단위: 천달러)

구분 \ 년도별	'80	'85	'89	'90	'91	구성비 (91)
농 산 물	1,158	37	1,421	673	2,287	6.0%
축 산 물	161	12	-	-	-	
발 작 물	464	762	636	468	460	1.2%
수 산 물	15,268	19,957	27,333	24,446	22,642	59.7%
공 산 품	1,713	4,108	12,739	10,511	12,506	33.0%
합 계	18,764	24,876	42,129	36,098	37,895	100%

※ 제주도 상공과 자료

제주농산물의 수출은 가공채소 즉 전조채소류의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일본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제주의 주요농산물이 果菜類인 점을 감안할 경우 제주농산물의 수출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거리상 가까운 일본의 농산물 시장은 제주의 立地條件과 생산구조로 볼때 제주의 수출시장으로는 最適地로서 일본시장 진출에는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어 적극적인 市場開拓과 輸出支援 擴大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농산물 加工産業의 육성으로 수출확대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日本의 채소류 輸入增加 趨勢를 감안할 때 당근, 월동배추, 양배추, 배추, 양파, 가지, 오이, 딸기, 수박 등 新鮮채소류 등과 화훼 등은 有望品目으로 볼 수 있으며 채소류는 對日 輸出戰略으로 품질이 균일하고 작은 것을 생산하여 일본사람들의 嗜好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농민들의 가격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과 유기농법의 개발, 低毒性 농약살포 등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先行條件이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하여 일본직항로 개설(선박 또는 비행기)이 시급하고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운송선박 확보 운영도 요구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감귤의 수출은 市場多邊化와 품질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전담기구 등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강화와 輸出損失 補填制度 등 제주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제주농업의 開發方向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에서 제주농산물의 수요를 擴充하고 국외시장에 수출증대에 의한 需要創出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3. 流通構造의 改善

제주지역은 地域的 特殊性으로 인하여 농산물 유통구조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流通下部構造의 취약성과 산지 공동출하조직의 기능미흡으로 중간상인의 圖田去來 등 어려움이 많이 있고 육지와외의 수송거리 등 수송비가 과중하게 들고 유통구조의 다단계로 流通마진이 과다하여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농산물 저장시설인 저온운반차 확보 등 대형선과장의 확보, 집하장, 창고, 직판장, 항만시설의 확충, 수송선박의 확보 등 유통하부구조 構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공공장 설치, 곽판지 제조공장 등 생산자 단체가 유통 및 가공산업에 적극 참여하며, 작목별 생산자단체의 생산조정 능력을 증대하고 年次的으로 共同計算制를 실시하므로서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능률을 향상시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에 대한 規格出荷指導를 강화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에 대한 品質 認證制를 적극 도입하고 固有商標를 개발하여 聲價를 얻어 지역상품의 差別化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제주지역에도 公營都賣市場을 개설하여 대량, 신속한 유통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농민의 거래교섭력 증진과 출하비용절감을 위하여 작목반을 운영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별, 포장시설, 수송차량, 저온창고 등 산지포장시설 및 출하선도금, 출하지도, 시장정보 지원 등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價格安定 政策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농산물 유통에 革新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농민도 이제는 가격변동과 생산량 변동이 相互影響을 받는 屬性(즉 수요공급의 법칙)을 더욱 인식하고 출하조절과 생산량 조절만이 농산물 유통에서 適正價格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直販場을 확대 운영하여 농산물 유통개선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주도내 주요 농산물 중 농업소득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감귤과 수급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하여 問題點과 流通改善 方案을 살펴본다.

감귤유통은 크게 生果用, 加工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과용 감귤의 유통은 다른 청과물과 같이 수집단계, 중계단계, 분산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수집단계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져 농협계통조직인 작목반을 통한 계통출하와 山地蒐集商을 통한 商人出荷로 구분되어진다.

'92년산 감귤의 출하형태별 유통처리비율을 보면 생과용 상품출하가 81%, 가공용 출하기 19%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저 감귤유통의 문제점으로는 해거리 현상과 量的爲主 생산추진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유통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산지 공동출하 조직이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산지 유통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도내 보유 감귤 저장고는 11,179동으로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성수기 洪水出荷로 가격폭락이 발생하고 감귤운반에 따른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물량이 滯貨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12월부터 채소류 출하와 겹쳐 수송차량, 항만시설, 선박 등 운송수단의 부족으로 체화현상이 발생하여 감귤유통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셋째는 소비지 도매시장 등 流通施設의 부족이다. 制度市場인 농협공판장, 법정 도매시장 대부분이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청과물 처리능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는 생산자 의식과 規格化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작황의 흥풍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하여 가공용이든 생과용이든 일정량의 계통출하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包裝, 等級의 規格化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 공정한 유통처리와 상품에 대한 信賴度 提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귤원정리, 간벌, 적과 등을 통한 적정생산과 품종갱신 및 병충해 방제를 통한 品質向上이 있어야 하고 산지공동출하기반 확충을 위한 작목반 조직기능 활성화와 규격화 촉진으로 商品性을 提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대형감귤 저온저장고 확충, 중대형 감귤 선과가 확보, 운송여건 개선 등 산지 유통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건설확대 등 소비지 유통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行政的 助長 支援策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海外市場 開拓活動을 꾸준히 전개하여 감귤수출 확대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채소류의 유통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바 생산조정을 통한 적정량 생산, 일본소비자가 원하는 적은 것 생산, 농업관측과 流通豫告 強化, 무공해 채소 생산출하, 표준화로 상품성 재고, 공영도매시장 확대 등 소비지 유통개선과 채소류 가공산업의 육성, 채소류 수출확대 등 유통개선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농촌일손의 부족과 가격의 불안정, 판매의 편리성 때문에 생산자에게 불리한 圃田去來가 성행하는 현실에 대한 생산자 단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는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監視機能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의 有害性을 가려내는데 앞장서고 原產地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반사례에 대한 고발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소비지 단체와 생산자 단체의 協力體制 構築이 필요하다.

4. 農外所得 增大

수입개방화 물결로 외국농산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촌과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都·農간의 소득격차가 深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농간의 所得均衡을 위해서도 농외소득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산업구조가 타지역에 비해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특수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농외소득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지역입지조건을 고려해 1차, 3차산업의 連繫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農工團地 입주업체 선정시 농산물 가공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농한기에는 낮은 기술수준을 가진 지역농민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농민의 농외취업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副業特産團地를 확대조성하여 상품화 가치가 있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지역대표성이 있는 특산단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지역특산품의 販路擴大를 위해서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확대 개설하고 상품홍보 및 판매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특산품의 상품성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지역농산물을 원료로한 加工産業을 집중육성하여 농산물의 附加價值를 높이고 농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제주지역 농업의 입지조건, 원료농산물 조달능력을 고려하여 比較優位에 있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개발육성하여 제품의 공동판매, 직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 및 생산자 단체가 시장개척 및 홍보활동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감귤과 채소류의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감귤가공공장 및 채소류 가공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같은 농산물 가공공장의 설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원료 농산물의 생산, 운송, 보관, 가공, 판매 등을 하나로 묶는 일련의 系列化體系(즉 종합가공, 연계시스템)를 통해 원가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하며, 특히 가공공장의 신규설립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認·許可절차가 용이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의 실질적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민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지역은 관광지로서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1차, 3차 산업을 연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야 한다. 농산물을 관광상품화하고 觀光農園을 조성하여 관광농원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도 농원의 조성과 운영에 참여하므로써 농업생산자의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원운영도 다양하고 特色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관련 道綜合開發計劃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土俗음식, 농산물 판매의 단순운영형태에서 휴양, 오락, 숙박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開發運營
- 지역별 自然環境 및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農園開發
- 가족단위 週末滯留型 농원조성

○ 1차산업 생산물의 산敎育場

이외에도 관광업소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추진, 民泊事業의 확대, 관광단지내 농산물 직판장 확대개설 등 농촌의 潛在資源과 계절적 遊休勞動力을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가 바람직하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輸入開放化에 對應하는 濟州農業의 構造改善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농업, 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농산물 수입개방의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농업의 生産流通 構造改善, 輸出擴大 및 農外所得 增大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田作중심의 제주농업의 구조개선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정재배면적과 적정량 생산 등 生産調整이 이루어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추진과 전문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에서, 가격경쟁면에서는 불리하므로 有望品種과 새로운 代替作目的 개발은 물론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품질경쟁으로 이기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科學技術 爲主의 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연구 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과감한 투자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流通改善을 위하여는 유통시설 확보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지원이 필요하며 생산자 단체에서 출하조직을 정비강화하고 포장, 등급의 규격화로 소비자의 信賴度를 얻어야 하며 다단계화된 유통단계를 최대한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情報化시대, 商業農經營 시대인 오늘날, 농산물 유통은 시장정보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농업경제 통계나 시장정보, 농업기술 정보 특히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농산물 價格支持에 의한 농업소득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農外所得 增大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하므로 농업경영구조 개선에 의한 시장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며 농촌은 농민을 위한 生活空間으로서 농민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의 휴식공간, 생활공간이므로 농촌환경 보존,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학자금 보조, 복지연금 제도 등이 마련되어 생활이 보장되므로써 농민 離農現象을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농업구조개선 사업은 하루아침에 실효를 거둘 수 없지만 정부와 생산자 단체 그리고 농민, 우리모두의 힘을 모아 주어진 역할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농산물 市場開放化의 波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